

용의 인격구조의 얼굴 페르소나로 본 영화 속 주인공 심리분석

The face of Jung's psychological structure for heroes in the movie persona

강유라

동서대학교 디자인전문대학원

Kang yu-ra

Dongseo Univ., graduate school of design

요약

용의 분석심리학적 성격이론 페르소나는 사회의 인습과 전통의 요청과 그 자신의 내적 원형의 요구에 부응해서 채택한 가면이다. 이것은 사회가 그에게 부과되는 역할이며 사회가 인간에게 생활에서 담당하기를 기대하는 배역이다. 가면의 목적은 남에게 뚜렷한 인상을 주려는 것이며 그리고 반드시 그렇지는 않지만 이따금 사람의 본성을 감추기도 한다.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외부 환경에 의해 만들어지는 인간의 이중적인 가면을 토대로 영화 속 주인공의 삶과 그 속에서 요구되고 나타나는 내외적 성격과 심리를 연구 분석해 보고자 한다.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인간은 사회 속에서 타인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 자신의 위치에 어울리는 다양한 모습을 갖고 살아간다. 제한된 사회 규범 속에서 모든 인간은 사회에서 요구하는 모습을 스스로 형상화하고 있으며 그러한 내면에는 이러한 외적 요소와 대비되는 무의식이 자리 잡고 있다. 그리고 인간은 이 두 가지 상반되는 요소의 결합을 통해 사회 속에서 살아가야 할 개체로서의 외면과, 사회적 역할 속에서 변화가 없는 인생을 보내지 않도록 그로 하여금 주어진 전 생명력을 불태우도록 촉구하는 무의식, 즉 자기(self)를 융합시킬 수 있다. [1].

본 연구는 심리학자 칼 구스타프 융(Carl. G. Jung:1875-1961)의 인격의 구조 속 페르소나라는 개념이 사회와 만나서 관계를 맺고 형성되는 복합적인 자아임을 인식하고 영화 ‘집오리와 들오리의 코인로커’ 속 주인공의 자신 내면의 깊숙이 자리 잡은 모습은 무엇이

며 또한 외부 충격이로 인하여 자신이 새롭게 생성한 그의 외적으로 보여 지는 얼굴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고찰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페르소나의 의미

본래 페르소나란 극중에서 특정한 역할을 하기 위해 배우가 쓰는 가면을 가리킨다. 개인은 페르소나에 의해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존재를 연기할 수 있다. 페르소나란 개인이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가면 또는 외관으로, 그 개인에게 유리한 것이라야 하며 생존을 위해 필요하다. 페르소나의 이점은 못마땅한 사람도 포용하고 친분을 맺어 개인의 이득이나 업적을 가져올 수 있고, 사회 생활과 공동생활의 기반이 되며 그것이 주는 물질적인 보상을 보다 만족스러운, 보다 자연스럽고 개인적인 생활을 누리는데 사용할 수도 있다. 개인이 자기가 연출

하고 있는 역할에 너무 맡겨두고 사로 잡혀 이 역할에 함몰된다면 그의 인격의 다른 측면은 제거될 것이다. 이와 같이 페르소나와 아직 발달하지 않은 인격의 부분이 갈등을 일으키기 때문에 긴장 속에서 살게 된다. 자아가 페르소나와 동일시되는 것을 팽창이라고 부른다. 페르소나의 팽창은 기대되고 있는 수준의 삶을 영위하지 못하는 사람에겐 열등감이나 자책감을 느끼게 한다. [2].

Ⅲ. 영화 *집오리*와 *들오리*의 코인로커 작품 분석

1. 주인공분석

영화 속 주인공인 도르지는 차가 다니는 도로위의 강아지를 구해 주게 된다. 그는 부탄이란 국가에서 왔으며 불교의 윤회사상을 받아들여 종교란 틀 안에서 만들어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민족적 의식이 그의 행동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리고 영화는 외국인에 대한 일 본인의 편견어린 시선을 서슴없이 보여준다. 버스정류장에서 해매고 있는 외국인에게 친절하지 못한 행동과 짜증 섞인 말을 내뱉는 모습이나 외국인 학생 도르지가 동아리 신입생 모집 시 환영받지 못했던 경험 등은 도르지가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가와사키를 연기하게 되는 또 하나의 이유로 의식 속에 내재되었다. 또한 영화는 *집오리*와 *들오리*의 차이점을 들고 있으며 *들오리*는 처음부터 일본에 있던 것이고 *집오리*는 다른 나라에서 온 것이라고 말하며 내국인과 외국인인 도르지를 명확히 구분 짓고 있다. 영화에서 도르지는 시이나에게 신분을 들켰을 때 사실대로 말을 했다면 자신의 말을 들어줬을 것이냐며 말을 되묻고 자신의 입장을 드러낸다. 자신을 향해 마음을 열어 준 가와사키가 죽은 후 그와 똑같은 헤어스타일과 그의 옷을 입고 말투, 행동을 따라하게 되었다. 자신이 좋아한 사람들의 죽음으로 인해 느낀 상실감이 컸을 것이다. 일방적으로 도르지가 가와사키를 동일시함에 따라 그에 맞는 페르소나가 발달하게 되었고 그것을 통해 스스로를 다시 실현하려 하였다. 자신의 연인을 죽음으로 몰아간 남자를 죽이려 했지만 또 한편으론 살 수 있게끔 만든 것은 페르소나와 그의 가려졌던 내적인격의 충돌로 갈등이 있었음을 보

여준다. 시이나가 그의 지은 죄를 덮기 위해 가와사키가 말했던 신을 로커에 가두는 행위는 도르지가 가면을 벗고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는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으며 마지막에 시이나가 고향으로 떠나는 것을 바라보며 질문을 하는 장면에서는 도르지 본인으로 돌아와 앞으로 한걸음 나아가려는 의지를 엿볼 수 있으며 시이나에게 자신의 가면을 벗고 진짜 모습을 밝히고 싶었으리라 생각된다.

Ⅳ. 결론

영화 속 주인공을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페르소나는 개인이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가면이며 사회가 요구하는 측면을 반영하여 만들어 지는 것으로 사회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개인의 욕구가 반영된 것이다.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 사람들은 개개인의 페르소나를 필요에 따라 상대가 원하는 것이나 자신이 원하는 것으로 바꿔 쓸 수 있으며 또 한편으로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페르소나에 지배되어 자신의 무의식 속에 내재되어 있는 자아를 상실해 버리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어느 순간 내가 원하는 바를 인식하지 못하게 되고 궁극적으로 삶의 이유를 상실하게 되며 스스로의 판단에 의한 올바른 결정을 하기 힘들 것이다. 이렇듯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쳐 페르소나와 자신을 동일시하기보다 이것을 적절히 통합하고 균형 있게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확고한 자기의식을 통하여 다양한 페르소나를 가져야 하는 것이다.

■ 참고 문헌 ■

- [1] 김성수 “인간의 페르소나 표현에 대한 연구”, 홍익대 석사논문, pp.1, 2004,
 [2] C. S. 홀, 용 심리학 입문, pp.39-70, 범우사, 서울, 1996,